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사재 30억원 기부

정도언 일양약품 대표이사 회장이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사재 30억원을 기부했다고 일양약품이 3월31일 발표했다.

정도언 회장의 기부금은 항궤양 신약 <일라프라졸>,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<IY-5511>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치료제 연구에 투자된다.

<화학저널 2008/04/01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